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끝나지 않은 공사와 남겨진 하자, 변경된 현장에서도 책임을 묻다.

4,680만 3,083원 배상 판결

일부 인용

하자보수·지체상금 청구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 고 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24. 2. 1.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3,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2024.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787,57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2.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2.부터 각 2022.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6,287,578원에 대하여는 2022.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측사 공사를 맡긴 의뢰인은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미완공된 측사에는 여러 하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02 해결을 위해 짚은 쟁점

손해와 공사 지연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남은 공사에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 가기 위해 측사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축한 상태였습니다. 최초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신의 집과 가게,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묶여 있다면.

공사중단과 하자로 생긴 손해. 해울은 4,680만 3,083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사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 측사나 건물에 하자가 생겼는데 보수를 미룬다면?
- 다른 업체를 불러 남은 공사와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현장의 변경이라는 제약 속에서 변론과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공사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와 하자, 손해를 연결해 제시하였습니다. 현장 상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책임을 다툰 사건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4,680만 3,08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사건은 아니지만, 의뢰인은 미완공 공사를 둘러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사 후 현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입증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공사중단과 하자로 생긴 손해. 해율은 4,680만 3,083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미 지급한 공사비와 추가 보수비 때문에 부담이 크다면?
- 공사 중단 전후의 사진과 견적서가 남아 있다면?
- 시공업체에 어떤 항목의 손해를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